반기문 이번주 방북 김정은 만날 듯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북한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인 유엔총장 첫 북한 방문…북핵 등 현안 협의

'평화메신저' 역할 주목…한반도 정세 변곡점 되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내에 북한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고위 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반 총장이 북한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는 3번째다.

앞서 1979년에는 쿠르트 발트하임 사무총장, 1993년에는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각각 방북했다. 반 총장의 전임인 코피 아난 총장은 수차례 방북을 시도했지만, 일정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반 총장 역시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방문할 생각이 있으며, 꼭 방문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사무총장 임기를 불과 1년 정도 남긴 이번에 방북이 성사됐다. 특히 반 총장이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의 방북 시기는 이번 주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 총장의 이번 방북이 반 총장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쪽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반 총장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반 총장의 이번 방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북한 핵문제와 별다른 진전이 없는 남북한 통일문제 관련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방문하면서 회원국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 총장과 김 위원장 간 양자 회동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북한 평양을 전격으로 방문하면서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 등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가원수급인 반 총장이 어떤 경로로 북한에 갈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전용기가 없는 상황에서 반 총장 일행이 어떤 경로와 어떤 수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갈지도 관심사다.

앞서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하는 중에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됐으나, 방문 직전 북한의 거부로 취소됐다. /연합뉴스

완도군 6200만원 '7둥이' 낳으면 무안군 350만원

전남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목포·고흥 둘째…순천·무안 셋째부터 지원

완도군에서 7명의 자녀를 낳으면 62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무안군에서 같은 수의 자녀를 가지면 그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350만원을 받는다. 인구 감소와 낮은 출산율에 허덕이는 전남도내 각 시·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지급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고흥은 둘째부터, 순천과 무안은 셋째부터, 나머지 지자체는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규모도 제각각이었다. 목포시는 둘째 2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120만원,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 각각 170만원씩을, 여수시는 첫째 20만원, 둘째 170만원, 셋째 270만원,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각각 97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는 셋째 150만원을 시작으로 넷째 170만원,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 200만원씩, 나주시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470만원씩, 광양시는 첫째와 둘째는 70만원씩, 셋째와 일곱째까지는 170만원씩을 주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총액 규모로 보면 여수시가 4340만원으로 가장 많고, 목포시가 720만원으로 가장 적다.

군 단위 지자체 간 격차는 더 컸다. 완도군은 첫째와 둘째는 100만원씩, 셋째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승해 넷째 1100만원, 다섯째 1200만원, 여섯째 1300만원, 일곱째 1400만원까지 모두 6200만원, 영광군 역시 첫째 120만원부터 둘째 240만원, 셋째 900만원,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1100만원씩 모두 5660만원의 액수를 부모에게 보태고 있다.

이 외에 출산지원금 총액 규모가 3000만원이 넘는 군은 화순(5520만원), 보성(4800만원), 강진(3960만원), 해남(3920만원), 함평(3890만원) 등이다.

반면 무안군은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70만원씩 350만원, 담양군은 일곱째까지 낳아도 총액으로 78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

이들 시·군 출산지원금 총액 평균은 2838만1000원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력에 따라서 또는 인구 증가를 시·군정에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서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땅값' 50년새 3천배 올랐다

우리나라의 땅값(토지자산 가격)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3000배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3년 5848조원으로 증가했다. 49년 동안 3030배로 늘어난 것이다.

토지의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1964년 19.6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1964년, 1976년, 1983년을 복수의 기준년으로 잡아 지가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전의 토지가격 추정에는 대한금융단 및 한국감정원 자료가 활용됐다.

토지자산 가격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92%를 나타냈다. 1970년과 1991년에 각각 547%, 597%로 급등했고 1978년에도 434%로 높았다.

2013년에는 전체 기간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40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호남 이미지 왜곡 원인은 지역감정 조장·역사 왜곡"

광주전남硏, 전국 설문조사

지역감정 조장, 역사적 사건 왜곡 등으로 인해 호남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협력 과제인 호남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14일간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는 광주·전남 지역 거주자 200명과 타 시·도민 1000명이 참여했다.

16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광주·전남 지역 비방 현상에 대해 75%가 '매우 잘못', 20.5%는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관심없다'가 3.5%, '잘못되지 않았다'가 1%였다.

광주·전남 이미지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는 57%가 '지역감정 조장'을 꼽았다. 이어 '역사적 사건 왜곡'(14%), '잘못된 인터넷 문화'(12%), '언론의 잘못된 보도'(7.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호남 이미지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상생협력 과제로 '호남 이미지 창조적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강진 구간 내년 하반기 착공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가운데 광주~강진 구간(51.75km) 공사의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완료돼 하반기에 착동될 전망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광주 서구 벽진동 제2순환도로~강진군 성전면 명산리까지 51.75km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건설공사는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완공된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1조4000억원을 들여 모두 7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다.

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강진까지는 기존 1시간 20분대에서 30분대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까지는 20분에서 6분으로 이동거리가 단축된다.

고속도로가 혁신도시를 통과하면서 국도 1호선, 13호선과 함께 3개 축이 광주와 혁신도시를 연결해 물류비 절감,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광주 서구와 남구 대촌에 들어서는 도시첨단산단을 비롯한 나주·영암·강진 등 전남 남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확충돼 낙후지역의 국가 간선도로망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 구간을 내년 말 착공하되 광주와 혁신도시 구간은 우선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나주~완도 66.3km 도로 건설을 추진했지만 광주, 전남 지역 사회의 요구로 2007년 5월 기획재정부가 광주까지 구간 연장을 승인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2001년과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보류됐으며 지난해 광주~강진 구간을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광역시공고 제2015-1071호

201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 공모

이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박용철·김현승·정소파·허백련·오지호·임방울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2015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시상 부문 및 인원

시상 부문	상 명칭	시상 종류 및 인원	비 고
문 학 부 문	박용철문학상	본상 1명	※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상장상패만 수여함
	김현승문학상	본상 1명	
	정소파문학상	본상 1명	
한국화부문	허백련미술상	본상 1명, 특별상 1명	
서양화부문	오지호미술상	본상 1명, 특별상 1명	
국 악 부 문	임방울국악상	본상 1명, 특별상 1명	

※심사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음

2. 수상후보자 자격
○ 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 –시·소설 등 문학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허백련미술상 본상 –한국화, 문인화, 서예 등 전통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허백련미술상 특별상 –허백련미술상 본상에 규정된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작가로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 오지호미술상 본상 –서양화, 조각, 판화 등 현대미술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오지호미술상 특별상 –오지호미술상 본상에 규정된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작가로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 임방울국악상 본상 –판소리 등 국악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임방울국악상 특별상 –임방울국악상 본상에 규정된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작가로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3. 심사대상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권자 :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이력서 1부, 소명합판 사진 2매, 기타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 접수기간 : 2015. 11. 16 ~ 11. 30 (15일간)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구 서구청) 사)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
5. 수상자 발표 : 2015. 12월 중(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및 개별 통지)
6.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공직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하실 곳 : 사)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 (☎ 062-528-9207~8)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과 (☎ 062-613-3461)